

통일 칼럼

북한 충성 편지로 북중 강요

북한 주민들은 최근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에 한창이다. 각 지방에서 최고지도자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편지를 써서, 이걸 계주 형식으로 평양까지 운반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각지 인민들과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 대한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안고 거리에 나와 꽃다발을 흔들면서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대열들을 뜨겁게 맞이하고 열렬히 환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12월 20일 첫 지방공업장 준공식이 열린 평안남도 성천군과 대규모 온실종합농장이 바라 보이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지난 2022년 9월 대규모 신행 농기계보급이 이루어진 황해남도 해주시 등에서 출발한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대열의 이동 경로를 설명했다. 묘향산의료기공공장(자강도), 김화군 초서리 교양마당(강원도), 련포온실농장(함경남도), 중평온실농장(함경북도), 해산시(당강도)를 출발한 이어달리기 대열은 “인민들의 한결같은 충성



정복규

논설위원

의 마음과 불같은 결의를 담은 편지를 안고 평양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곧 열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요즘 북한의 첫 번째 소식이다. 북한에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찰에 해당 하는 사회안전성 일꾼들이다. 이들은 최근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를 위해 백두산에 올랐다.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는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담은 붉은 가방을 평양까지 계주 형식으로 운반하는 군중대회의

다. 각 도의 지방당과 경제기관, 대학 등의 간부들과 청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조선중앙TV는 9월 13일 “사회안전군 장병들의 불같은 충성과 견결한 애국의지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비상히 승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대회는 1950년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했다. 이후 기념할만한 국가행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올해는 다음 달 10월 10일에 있을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여러 계층이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평소 충성의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백두산 등 감씨 일가와 관련됐다는 장소에서 출발하곤 했다. 이번엔 지방발전 정책을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모자이크 벽화 앞에서 대회 모임을 가진 것도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인민대중이 모두 참가하는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면서 지방발전 정책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택했다. 당 창건 80주년 행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김정은의 업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예상케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단독벽화는 지난 2022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여러 지역들에서 포착됐다. 김정은에 대한 본격적인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를 통해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하며,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독자재언

학교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많은 어른들은 “또 시작인가”라는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교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평범해야 할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증가하며 수법이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매년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에 진출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같은 예방 활동을 다

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사소한 따돌림이나 장난이라 해도 남을 괴롭히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교육하고, 폭시라도 직접적으로 겪었거나 또는 목격했을 경우 112, 117 신고를 통해 피해 내용을 알릴 것을 적극적으 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 음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는 만큼 가정에서도 학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표정을 놓칠 때 부모는 알게 모르게 아이를 혼자 두는 셈이다. 그런 무관심이 쌓일수록 아이는 피해자로, 때로는 가해자로 내몰린다. 학교폭력을 막는 첫걸음은 결국 끊임없는 관심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본다. 최치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베르사유 궁전 앞 모인 프랑스 농민 시위대



지난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농민들이 유럽연합(EU)-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으로 구성된 남미경제공동체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대중음악의 선구자 남인수

대중음악의 선구자 남인수(南仁樹)는 1918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출생했다. 처음 이름은 강문수(姜文秀)이다. 일설에 의하면, 최씨 집안에서 태어나 처음 이름이 최창수(崔昌洙)였 다. 학력은 1932년 진주 봉래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일제시대 학적부를 통해 확인된다. 1936년 2월 「눈물의 해협」으로 데뷔했다. 오케(Okeh)레코드사로 이적, 1938년 「애수의 소아곡」으로 명성을 얻었고, 1943년까지 전속가수로 130여 곡을 발표했다. 1938년 발표된 「기묘의 황혼」은 치안 방해의 명목으로 가두 연주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1965년 월북 작사의 이유로 방송금지곡 1호로 지정되 었다. 1942년 「강남의 나팔수」를 비롯해 조선군보도부(朝鮮軍報道部)에서 지원병 제도를 선전하

기 위해 제작한 영화 동명 주제가인 「그대와 나」등을 불렀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음반 제작이 중단된 1944년 이후로는 약초(若草) 가극단 등에 소속되어 무대에서 활동했다. 음반 제작이 재개된 1947년 이후 「가거라 삼팔선」등을 불렀다. 1948년에는 아세아(Asia)레코 드사를 통해 음반을 제작하기도 했다. 1949년 발매된 「여수야화」의 경우 정부와는 다른 입장에서 ‘여순(麗順)사건’을 다루어 판매 금지를 당했다. 6·25 전쟁 중에는 국방부 정훈국 문예중대 소속으로 군 위문 활동을 했다. 이후 오리엔트(Orient) 레코 드사를 비롯한 다수의 음반 회사에서 「이별의 부산정거장」, 「추억의 소아곡」등 다수의 곡을 발표했다. 1962년 사망했다.

노인복지를 위한 자문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는 9월 18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2025년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상반기 자문위원 문화탐방 성과 공유 △제29회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 대상자 공적심사 결과 △자문위원 및 시·군지회장 문화유적 탐방계획 △한후 도 연합회 발전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도 연합회 자문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 26일 출범하였다.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구 회장은 제16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지성주택 건설사를 운영하며, 자문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겨울철 소외가정을 위한 연탄 나눔, 노인의 날을 기념한 자랑스러운 어른상·공익상·애향상·효행상 제정과 시상, 자문위원과 임직원 간의 화합을 위한 문화유적

탐방, 노인지도자대학 현장학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과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자문위원회가 노인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구 자문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노인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두봉 연합회장, 김영구 자문위원장, 김종득 전국노인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오재면 노인회 원로, 박춘열 인디비주얼 대표, 임수진 前 진안군수, 신백식 前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장, 박성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박성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교문, 김관수 전 라도음식이야기 대표 등 자문위원과 연합회 3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